

제 102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05.12)

在「만주(滿州)」일본 문화의 거점 이동에 대하여
-대련(大連)에서 신경(現長春)으로-

고바야시히데오
와세다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략적 중요성을 띄는 나라로서,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맺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관계로서 안보상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시에, 일본과 동북아지역안보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해야 한다.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공통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 동북(지역)의 관계는 1904 년의 러일 전쟁 발발에서 1945 년의 패전까지 40 여년에 이른다. 그 40 년간 약 150 만명의 일본인이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며, 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들의 대부분은 당초 만철 연선의 대도시나 부속지에 살고 있었다. 7 만철 부속지로 불린‘만철 연선지역’을 제외하면, 그 이외의 오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는 매우 적었다. 일본인이 특히 밀집하고 있었던 장소는 만철 본사의 소재지이며 만주물산(滿州物産)의 수출 항구이기도 한 대련(大連)이었다. 대련은 중국 동북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경제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在만주 일본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했다

중국 동북 문화의 역사는 반세기에 이르지만, 전반의 30 년은 대련을 중심으로 한 일본 문화의 활동을 볼 수 있으며, 후반의 20 년은 그 중심이 대련에서 신경으로 불린 만주국 수도로 이행했다. 그 변화 과정은 특히 문학나 영화 등에서 현저했다. 1930 년대 이후 전시체제로의 이행에 해당되어 가장 중요한 분야가 영화이며, 문학인 것을 생각하면, 그 이행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다. 연극이나 스포츠도 영화나 문학 만큼 현저하지 않지만, 동인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이행의 개략을 묘사한 것으로, 만주국의 문화적 특징을 지역 이행의 시점에서 분석했다.

<Q&A>

Q. 만주내 일본문화의 거점이동에 대해 궁금하다.

A. 대련에서 신경으로의 문화 거점 이행은 그때까지 문화를 짊어졌던 만철에서 만주국으로 이행한 것이다. 그것은 만주국의 성립에따라, 만철 중심 시대가 끝을 고하면서 만철 개편 등을 거쳐 만철이, 그때까지의 「소국가 (小国家) 」에서 철도 회사로 축소해 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만철이 구축한 문화 전통 위에 신경 문화가 꽃 피운것이라 할수 있다. 가장 자유주의적인 대련 중심의 만철 문화에 대해서 신경의 만주 문화는 국권적인 분위기가 농후했다.